

ORIGINAL ARTICLE

## 녹색생활관련 인지정도가 녹색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주원 · 조소연\*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 The Effect of Cognition Degree of Green Life on Green Consumer Behavior

Joo-Won Jung, So-Yeon Cho\*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100-715,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green consumer behavior (green product purchasing behavior and green consumption life) affected by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cognition degree of green life (cognition of a green indicator, a green life catalyst system, and environmental problems). It's also to promote strategy and suggest effective activation plans for the vitalization of green consumer behavior. To carry out the task, verification of credibilit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wo-step cluster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that effect green product purchasing behavior were gender, age, cognitive of a green indicator, carbon points system, electricity peak hour system, and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damage due to lifestyle. Second, the factors that effect green lifestyle were gender, age, carbon grade indicator system, cognition of a green system, and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damage due to lifestyle. Third, the comparative group characteristic analysis showed low rates for careless green consumer behavior groups compared to the passive green consumer behavior groups in cognition of a green indicator, green system, and environmental problems. For active green consumer behavior groups, the analysis showed high rates in cognition of carbon grades, eco-labeling, electricity peak hour system, and environmental damage due to lifestyle. In order to encourage green consumer behavior, it's evident that cognition of a green indicator, a green life catalyst system, and environmental problems need to be improved through strategic education and continuous encouragement.

**Key words** : Cognition of a green indicator, Cogni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Cognition of a green system, Green consumer behavior, Green product purchase

#### 1. 서론

양적인 경제성장과 물질 풍요에 맞추어 오던 생산과 소비의 확대는 자원고갈과 에너지 부족, 지구환경 문제

에 부딪히면서 질적 성장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의해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 기업들의 차세대 슬로건은 거시적 차원에서 녹색

Received 27 June, 2014; Revised 11 August, 2014;

Accepted 13 August, 2014

\*Corresponding author : So-Yeon Cho,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100-715, Korea

Phone: +82-2-795-3986

E-mail: soyeon@dongguk.edu

©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성장을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내세우며 녹색소비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중요 이슈로 다루어 왔다.

정부에서는 녹색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품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관련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녹색소비를 장려하였다. 대표적인 관련법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너지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원 절약, 에너지절약 등의 실천으로 녹색환경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마크제도, 탄소성적표지제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등의 도입으로 녹색소비 관련 인증을 개발하여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탄소포인트 제도 및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력피크시간대제도 등을 도입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소비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Bae, 2009).

정부에 의해 마련된 다양한 정책적 기반들은 녹색소비로의 전환과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실천적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소비자의 녹색지향적 소비행동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녹색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소비자의 실천행동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녹색사회로의 활성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녹색소비행동이란 일상생활에서 녹색제품 구매, 자원의 효율적 사용 그리고 폐기물 감소를 행하며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으로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비실천을 의미한다(You, 2012). 즉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하며 다 쓴 제품을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생활전반에서 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 실천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의 83%가 녹색제품에 대해 긍정적 구매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구매경험은 60%수준으로 나타났으며(Ministry of Environment, 2009), 녹색소비에 대한 인식수준에 비해 실천행동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aek, 2010; You, 2012). 소비자의 녹색소비인식과 실천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녹색소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부족, 올바른 사용과 실천을 위한 가이드 부족 그리고 자발적 실천을 위한 동기부여 미흡 등이 지적되어 왔으나(Hwang, 2008),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파악은 부족한 실정이다.

녹색소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중요하게 인식하여

녹색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인 요인들과 환경적인 변인들을 밝히고, 그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왔다(Keum, 2013; Kim, 2014; Lee, 2013). 그러나 연구의 대부분이 특정 소비층을 대상으로 한 녹색소비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짐으로써 실천행동 측면에서의 제도적 영향력과 녹색소비행동 분석은 일부(Moon와 Lee, 2013)에 그치고 있어 현실적인 분석과 이해가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녹색소비의 실천적 정착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청의 2013년도 녹색생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녹색소비관련 제도들에 대한 소비자 인지와 녹색소비행동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녹색표시제도인지, 녹색생활촉진 제도인지, 환경문제인지 정도가 녹색제품구매행동과 녹색소비생활행동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녹색제품구매행동과 녹색소비생활행동에 따라 소비자 유형을 군집 분류한 다음, 각 군집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녹색생활 관련 인지가 무엇인지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개선방안과 효과적인 실천과제가 모색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녹색생활관련 인지정도가 녹색제품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녹색생활관련 인지정도가 녹색소비생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녹색소비행동 군집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녹색생활관련 인지는 무엇인가?

## 2. 재료 및 방법

### 2.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연구를 위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3년 녹색생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녹색생활조사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녹색 생활 실천수준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 이후 격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녹색생활조사에서 녹색표시 제도인지, 녹색생활촉진 제도인지, 환경문제인지, 녹색제품구매행동, 녹색소비생활행동 질문에 모두 응답한 1,242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728명(58.6%),

여성 514명(41.4%)이며,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479명(38.6%), 대졸 643명(51.8%), 대졸초과 120명(9.7%)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가 468명(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 이하 346명(27.9%), 50대 321명(25.8%), 60대 이상 107명(8.6%) 순이었다. 가구소득은 2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인 498명(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356명(28.7%), 200만 원 미만 214명(17.2%), 600만 원 이상 174명(14.0%)순으로 나타났다.

2.2. 설문도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 변수는 녹색생활 관련 인지와 녹색소비행동이다. 녹색생활 관련 인지는 녹색표시 제도인지, 녹색생활촉진 제도인지, 환경문제 인지 3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에 대해 살펴보면, 녹색표시 제도인지는 녹색제품에 부여되는 인증 마크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측정은 에너지소비자효율등급표시제도, 탄소성적표지제도, 환경마크제도에 관한 인지정도로 파악하였다. 녹색생활촉진 제도인지는 녹색생활에 대한 소비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측정은 탄소포인트제도,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력피크시간대제도에 대한 인지정도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환경문제인지는 소비자가 평소에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생활습관에 의한 환경훼손의 심각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환경 문제의 심각성으로 파악하였다. 모든 문항들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모른다.' 1점에서 '잘 알고 있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녹색소비행동은 녹색제품구매행동과 녹색소비생활행동 2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녹색제품구매행동은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노력 정도로서 에너지절약형 제품,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 녹색표시가 부착된 제품, 친환경농산물, 지역농산품에 대한 구매인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노력한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0.69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생활행동은 환경을 고려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소비자의 행동정도로써 전원플러그를 뽑거나 멀티탭을 끄는 등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여름

철과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며 겨울철에 내복을 입고, 장바구니를 사용하며, 전력피크시간대제도를 고려한 에너지 사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전 시 급제동 및 공회전을 최소화하는 행동 등과 관련된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0.64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측정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수와 녹색생활 관련 인지(녹색표시 제도인지, 녹색생활촉진 제도인지, 환경문제인지)가 녹색제품구매행동과 녹색 소비생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녹색제품구매행동과 녹색소비행동에 따른 소비생활행동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2단계 군집분석(two step cluster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분류된 군집유형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녹색제품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녹색제품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중다회귀분석에 앞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값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 값이 0.3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값이 3.5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수 중 성별( $B=-.13, p=.000$ )과 연령( $B=.04, p=.006$ )이 녹색제품의 구매행동에 유의한 영향 변수로 나타났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녹색표시 제도인지의 하위변수인 에너지소비자효율등급표시제도( $B=.06, p=.022$ ), 탄소성적표지제도( $B=.19, p=.000$ ), 환경마크제도( $B=.18, p=.000$ )는 모두 녹색제

Table 1. Influential factors of green product purchasing behavior

Category	Green product purchasing behavior			
	B	SE	$\beta$	
Constant term	.92	.17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ale(Female=0)	-.13	.03	-.12***
	Below high school education (above university education=0)	-.06	.05	-.06
	Below university education (above university education = 0)	-.07	.05	-.07
	Family income	-.01	.01	-.02
	Age	.04	.01	.07**
Cognition of a green indicator	Indication of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06	.03	.06*
	Indication of carbon grades	.19	.01	.36***
	Eco-labeling	.18	.03	.17***
Cognition of green life catalyst	Carbon points system	.04	.01	.07*
	Volume-rate disposal system	.02	.03	.02
	Electricity peak-hour system	.10	.03	.09***
Cogni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lifestyle	.07	.03	.06*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climate change	.02	.02	.02
F		41.61***		
R <sup>2</sup>		.31		
Adj. R <sup>2</sup>		.30		

\*\*\*  $p < .001$  \*\*  $p < .01$  \*  $p < .05$

구매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가 녹색제품에 부여하는 인증마크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환경마크제도에 대한 지각이 소비자 제품평가와 구매에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하다(Moon와 Lee, 2013).

녹색생활촉진 제도 중에서는 탄소포인트제도(B=.04,  $p=.013$ )와 전력피크시간대제도(B=.10,  $p=.000$ ) 관련 인지가 녹색제품구매행동에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즉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에너지 절약을 유인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녹색제품구매 경향이 높음을 보여준다.

환경문제 인지 변수 중 생활습관에 의한 환경훼손 심각성(B=.07,  $p=.011$ )과 관련된 인지정도가 녹색제품구매행동에 유의한 영향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의식

이 녹색제품 구매행동의 결정적 영향요인이 된다는 Peattie(2001)와 Paladino(2005)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소비자일수록 환경을 고려한 구매성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Arnocky 등, 2007). 따라서 녹색제품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녹색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녹색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함께 환경 친화적 의식 강화가 행해져야진다.

### 3.2. 녹색소비생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녹색소비생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2와 같다. 중다회귀분석에 앞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값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 값이 0.3이상이고, 분산팽창

**Table 2.** Influential factors of green consumer lifestyle

Category	Green consumption life			
	B	SE	β	
Constant term	1.44	.1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ale(Female=0)	-.13	.02	-.16***
	Below high school education (above university education=0)	.05	.04	.06
	Below university education (above university education = 0)	-.01	.04	-.02
	Family income	-.02	.01	-.04
	Age	.06	.01	.14***
Cognition of a green indicator	Indication of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04	.02	.05
	Indication of carbon grades	.03	.01	.08**
	Eco-labeling	.03	.02	.04
Cognition of green life catalyst	Carbon points system	.03	.01	.07**
	Volume-rate disposal system	.10	.02	.12***
	Electricity peak-hour system	.17	.02	.21***
Cogni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lifestyle	.12	.02	.17***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climate change	.02	.01	.04
F		29.81***		
R <sup>2</sup>		.24		
Adj. R <sup>2</sup>		.23		

\*\*\*  $p < .001$  \*\*  $p < .01$  \*  $p < .05$

요인값이 3.2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수 중 성별(B=-.13, p=.000)과 연령(B=.06, p=.000)이 녹색소비생활행동에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녹색제품표시 제도인지 변수 중에서는 탄소성적표지(B=.03, p=.007)가 녹색소비생활행동에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즉 탄소성적표지제도 관련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속에서 녹색소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다.

녹색생활촉진 제도인지의 하위 변수인 탄소포인트 제도(B=.03, p=.009), 음식물쓰레기종량제(B=.10, p=.000), 전력피크시간대제도(B=.17, p=.000) 관련 인지는 모두 녹색소비생활행동에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즉 일상생활에서 녹색소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인 녹색생활 촉진제도 관련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소비생활을 잘 실천하는 것이다. 환경문제 인지 중에서는 생활습관에 의한 환경훼손 심각성(B=.12, p=.000) 인지가 녹색소비행동에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녹색생활 인지도가 녹색생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Myeong(2012)의 연구와 녹색소비지식이 녹색소비행동의 주요 영향력이라는 You (2012)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녹색소비생활행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탄소포인트제도,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력피크 시간대제도 등과 같은 촉진제도 등을 잘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적절한 편익을 제공하고, 이와 아울러 생활습관과 환경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자각을 지속적으로 일깨워 주어야 한다.

3.3. 녹색소비행동 군집유형별 인구통계학적 및 녹색생활 인지특성 비교

녹색소비행동인 녹색제품구매행동과 녹색소비생활행동의 기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이단계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3개의 군집으로 유형화되었는데 각 집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집 1은 녹색제품구매행동(M=2.68)과 녹색소비생활행동(M=3.15) 수준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무관심 녹색소비행동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51.1%), 군집 2는 녹색제품구매행동(M=3.28)과 녹색소비생활(M=3.57)의 수준이 모두 중간으로 나타나 ‘소극적 녹색소비행동집단’으로 명명하였다(33.5%). 군집 3은 녹색제품구매

행동(M=3.83)과 녹색소비생활행동(M=3.81)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녹색소비행동집단’으로 명명하였다(15.4%).

각 군집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측면과 녹색생활 관련 인지(녹색표시제도인지, 녹색생활촉진제도인지, 환경문제인지)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소극적 녹색소비 행동집단(군집 2)’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무관심 녹색소비행동집단(군집1)을 소극적 녹색소비행동집단(군집2)과 비교한 결과, 인구통계적 변수 중 여성에 비해 남성(B=.47, p=.001)일수록, 연령(B=-.22,

Table 3. Comparison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green life cognition based on various green consumer behavior groups

Category	Criterion: Group 2: Passive green consumer groups					
	Group 1: Careless green consume groups			Group 3: Active green consumer groups		
	B	SE	Wald	B	SE	Wald
Constant term	10.18	1.00	104.39	-9.08	1.68	29.3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ale(Female=0)	.47	.14	10.91**	-.40	.19	4.21*
Below high school education (above university education=0)	-.29	.27	1.16	-.34	.33	1.07
Below university education (above university education = 0)	-.12	.26	.23	-.46	.31	2.23
Family income	.07	.08	.90	-.20	.10	3.55
Age	-.22	.08	7.97**	.19	.11	3.08
Cognition of a green indicator						
Indication of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27	.15	3.47	-.09	.25	.13
Indication of carbon grades	-.41	.08	28.12***	.53	.12	21.48***
Eco-labeling	-.48	.15	10.54**	.95	.23	17.04***
Cognition of green life catalyst						
Carbon points system	-.21	.08	7.55**	.12	.10	1.30
Volume-rate disposal system	-.45	.16	8.33**	-.07	.24	.08
Electricity peak-hour system	-.44	.15	8.32**	.65	.26	6.21*
Cogni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lifestyle	-.39	.14	7.56**	.50	.23	4.70*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climate change	-.20	.10	4.18*	-.09	.12	.60
X <sup>2</sup>			2441.26**			
-2 Log likelihood			1977.13			
Cox & Snell's R <sup>2</sup>			.29			
Nagelkerke R <sup>2</sup>			.33			

\*\*\* p < .001 \*\* p < .01 \* p < .05

p=.005)이 낮을 경우 ‘무관심 녹색소비행동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녹색표시제도인지에서는 탄소성적표지(B=-.41, p=.000)와 환경마크(B=-.48, p=.001)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을수록, 녹색생활 촉진제도에서는 탄소포인트제도(B=-.21, p=.006), 음식물쓰레기종량제(B=-.45, p=.004), 전력피크시간대제도(B=-.44, p=.004)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생활습관에 의한 환경훼손 심각성(B=-.39, p=.006)과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문제 심각성(B=-.20, p=.041)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을수록 무관심 녹색소비행동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 전반에서 녹색제품구매와 녹색소비생활에 대하여 무관심한 소비자 집단은 소극적 녹색 소비자 집단에 비해 녹색생활관련 모든 인지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녹색소비생활에 무관심한 소비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녹색소비생활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전반적인 이해수준을 높이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다음으로 적극적 녹색소비행동집단(군집3)을 소극적 녹색소비행동집단(군집2)과 비교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B=-.40, p=.040)일수록 적극적 녹색소비행동집단의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녹색표시제도인지에서 탄소성적표지(B=.53, p=.000)와 환경마크(B=.95, p=.000)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녹색생활 촉진제도에서는 전력피크시간대제도(B=.65, p=.013)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생활습관에 의한 환경훼손 심각성(B=.50, p=.030)을 많이 인지할수록 적극적 녹색소비행동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높았다. 즉 적극적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집단은 소극적 실천집단에 비해 탄소성적표지 및 환경마크제도, 전력피크시간대제도, 생활습관에 의한 환경훼손의 심각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적극적 녹색 소비자들은 개인적 편익을 넘어 환경을 생각하는 이타적 고려가 녹색소비행동 전반에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극적 녹색소비행동에서 적극적 녹색소비행동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도덕적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녹색소비에 대한 내적 역량 강화를 통한 행동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결론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며 녹색소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소비행동(녹색제품구매행동과 녹색소비생활행동)에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및 녹색생활 관련 인지(녹색표시제도인지, 녹색생활촉진제도인지, 환경문제인지)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소비자들의 녹색소비행동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제품구매행동에서는 여성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녹색표시제도인 에너지소비자효율등급, 탄소성적표지, 환경마크 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탄소녹색생활 촉진제도 중 탄소포인트제, 전력피크시간대 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환경훼손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녹색제품 구매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녹색소비생활에서는 여성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탄소성적표지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녹색생활 촉진제도인 탄소포인트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력 피크시간대 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환경훼손의 심각성 인식을 높게 할수록 녹색소비생활 이행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군집유형별 특성 비교에서 소극적 녹색소비 행동집단에 비해 무관심 녹색소비 행동집단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적극적 녹색소비 행동집단은 탄소성적표지, 환경마크, 전력피크시간대 제도와 환경훼손 심각성 인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녹색소비행동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제품구매 행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녹색표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촉진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행동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그린카드와 연계한 녹색제품구매에 따른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을 강화하고, 녹색제품구매량에 따라 단계별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혜택을 마련한다.

둘째, 녹색소비생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녹색생활 촉진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적인 정착과 다양한 인센티브제가 확대되어야 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고, 매달 에너지 사용의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 지

급이 자동 부여되도록 한다. 시간대별로 에너지절약 점수에 차등을 두어 피크시간대의 전력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며,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전국 범위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녹색소비에 대한 소비자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소비자의 행동을 녹색지향적으로 전환해 가도록 한다. 무관심한 소비자에서 소극적인 소비자로의 변화를 1단계 목표로, 소극적 소비자에서 적극적 소비자로의 변화를 2단계 목표로 설정하여 각 단계에 적합한 녹색소비 관련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면 기존의 패널자료인 통계청의 녹색생활조사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관련 문항의 세밀한 파악에 아쉬움이 나타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소비자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Arnocky, S., Stroink, M., DeCicco, T., 2007, Self-construal predicts environmental concern, cooperation, and conserv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7(4), 255-264.
- Bae, S. Y., 2009, A Study on the Revitalizing System for Low Carbon Green Consumption, No. 09-08 Policy Research, Korea Consumer Agency, Seoul, Korea.
- Baek, E. N., 2010, A study on the attitude and energy consumption behavior of low carbon green growth :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Master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 Hwang, E. A., 2008, Sustainable energy consumption and the direction for promoting the supporting policies in and effort to realize sustainable energy consumption, No. 08-14 Policy Research, Korea Consumer Agency, Seoul, Korea.
- Keum, J. H., 2013, Relationship between green consumer behavior, environmental knowledge, and environmental attitudes among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1(1), 89-95.
- Kim, H. J., 2014, Segmentation of green consumers and willingness to purchase green products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Society for Environmental Education*, 27(1), 51-68.
- Lee, J. R., 2013,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green purchasing behavior and influences, *Journal of Marketing Studies*, 21(4), 149-172.
-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A Research on Public Perception of Green Growth and Environmental Educ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Seoul, Korea.
- Moon, S. J., Lee, S. H., 2013, Effects of consumer's eco mark perception on product evaluation, *Korean Society of Consumer Studies*, 24(1), 99-123.
- Myeong, S. J., 2012, The effects of awareness and education of green lives on implementation of green lives, *The Korean Society for Environmental Education*, 25(4), 470-479.
- Paladino, A., 2005, Understanding the green consumer: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Behavior*, 4(1), 69-102.
- Peattie, K., 2001, Golden goose or wild goose? the hunt for the green consumer,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10(4), 187-99.
- Statistics Korea, 2013, The green lifestyle survey, Statistics Korea, Daejeon, Korea.
- Yoo, H. J., Lee, E. H., Cha, K. W., 2013, A study on eco friendly consumption and eco-friendly information needs of consumers,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9(4), 107-134.
- You, D. R., 2012, The effects on the green consump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8(4), 1-24.